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산,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 육성 속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 수상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업인 가공제품을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

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개 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직매장, 4개 특산물판매장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급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지역내 소비순환 구축은 사업의 표준모델이 되고 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내년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허정찬 기자 · cldn27@daum.net